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5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취득 후기

후기에 앞서 자격증 취득에 많은 도움을 주신 안소연 복지사님과 김철형 강사님, 그리고 속기사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 활용한 강의 및 교재

- 하이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특강(김철형 강사님)
- 최태성 별별한국사 심화 상, 하권: 용어 설명, 표, 챕터별 문제만 보았음
- 최태성 별별한국사 기출500제

나. 공부방법

원래는 특강 커리큘럼에 맞춰서 6월에 딸 계획이었는데, 일이 생겨서 예정보다 빨리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강을 활용하되, 아직 진도가 나가지 않은 부분은 교재로 독학하였습니다.

제 공부방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 한국사 용어와 맥락을 연결해서 이해하기
- ❖ 연관성이 있는 용어들끼리 묶어 이해하기

1. 한국사 용어와 맥락을 연결해서 이해하기

아래는 특강 속기록의 일부입니다. 특강을 들으며 실시간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속기록 위에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 간섭기를 거쳐서 원 간섭기가 원명 교체기 때 **공민왕**이 즉위하면서부터 적극적인 어떤 원에 반대하면서 자주적 성격의 **반원** 자주, 왕권 강화의 정책들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정책을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면 원의 내정간섭을 받았던 부분을 하나 하나 원상복귀 시켜야 합니다. 그게 공민왕 때 개혁정치입니다. 그래서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것을 폐지해서 사법적 기능을 담당했던 **이문소**를 폐지시킵니다. 영토가 축소됐던 동녕부, 탐라총관부가 충렬왕, 충숙왕 때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쌍성부만 공민왕 때까지 돌려받지 못해요.** 그래서 **쌍성총관부**가 지배했던 지역이 위쪽 지역인데 무력으로 수복하게 됩니다. 영토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격이 떨어진 **관직**을 복구합니다. 이것들이 공민왕의 개혁정치입니다. 권문세력들에 의해서 왕권이 약화됐던 상황을 돌리기 위해서 왕권 강화와 권문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전민변정도감**입니다. 아주 유사했던 제도가 광종의 노비안검법입니다. 땅의 민을 변하게 하다 바르게 변하게 하다. 땅의 토지의 일반 양민을 바르게 변하게 한다. 즉 권문세족들이 한창 득세하던 시기에 억울하게 권문세족에게 땅을 빼앗기고 빚을 진 사람들이 노비가 된 사람들이 있다면 바르게 양민으로 돌려준다는 게 전민변정도감입니다. 바로 **신돈**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내세워서 했던 개혁입니다. 하게 됩니다.

노란색은 용어고, 붉은색 밑줄은 맥락입니다. 저는 특강을 듣고 교재를 보면서, 용어와 그 맥락을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래 표는 예시입니다.

한국사 용어	맥락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원 내정간섭 수단 원천봉쇄
쌍성총관부 지역 수복	국토 회복을 통한 자주권 확장
관직 복구	고유의 정치체제 부활, 자주권 강화
신돈과 전민변정도감 창설	권문세족의 사회경제적 기반 약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어를 보면 맥락이 떠오르게, 맥락을 보면 용어가 떠오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용어와 맥락을 각각 외우거나, 용어와 맥락의 조합을 통째로 외우는 것과는 다릅니다. 특정 용어와 구체적인 맥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논리적으로 하나씩 단계를 쌓아가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강이나 교재만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하이런에 올라온 한국사 강의로 보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1급을 따는 데는 특강과 교재로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2. 연관성이 있는 용어들끼리 묶어 이해하기

그렇게 개별적인 용어들을 이해한 후에는, 서로 관련이 있는 용어들끼리 묶어 이해했습니다. 위 표를 관통하는 더 커다란 맥락은 원 간섭기 공민왕의 반원자주 정책입니다.

공민왕 원 간섭기 반원자주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원 내정간섭 수단 원천봉쇄
	쌍성총관부 지역 수복	국토 회복을 통한 자주권 확장
	관직 복구	고유의 정치체제 부활, 자주권 강화
	신돈과 전민변정도감 창설	권문세족의 사회경제적 기반 약화

이 맥락 안에서 1.과 같은 방법으로 개별적인 용어들이 큰 맥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합니다. 그 후에는 다시 상위맥락을 찾아 또 연결합니다. 그렇게 이해작업을 반복하여 하나의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 > 공민왕 > 원 간섭기 > 반원자주 >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 쌍성총관부 수복 > 관직 복구 > 신돈 전민변정도감 > ..." 이런 식으로 개별 용어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연상되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시험지에서 '공민왕'만 봐도 자동으로 관련 용어들이 주르륵 떠오릅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별로 나열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시기문제까지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습니다. 저는 년도까지는 몰라서 특강과 교재에 나온 순서대로 보았습니다.

3. 보충암기

그렇게 교재를 1바퀴 돌려 하나의 체계를 완성한 후에는, 이해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예: 문화 파트)을 외웠습니다. 문화파트의 경우 사진도 암기해야 하는데, 사진 자체를 외우는 대신 그 사진에 담긴 특성을 암기했습니다. 그게 안 되는 경우(지도, 사료, 인물사진)는 버렸습니다.

따로 나만의 자료를 만들 시간은 없어서 대신 교재에 있는 용어에 형광펜으로 밑줄만 쳐 놓고 그 부분을 눈으로 반복해서 보는 식으로 외웠습니다.

4. 기출풀이

기출은 최근 2회차를 풀었는데, 패턴이 전형적이길래 더 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그 2회차가 비교적 쉬운 회차였습니다.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어보니 패턴이 좀 달라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못해도 5회차는 풀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대강 체크하기 위한 용도로만 풀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아는 문제는 답만 맞으면 넘겼고, 헛갈리거나 모르는 문제만 해설지를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개념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기출을 푸는 게 더 낫다고 하는데, 저는 최소 1독은 하고 푸는 게 편했습니다.

기출 문제집은 제 돈으로 샀는데, 해설집은 필요없고 문제만 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추천 드립니다.

→ 국사편찬위원회 한능검 기출 풀이사이트: <http://tok.historyexam.go.kr/pc/grade.html>

다. 시험 후기

위 방법으로 1급을 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쓰지 않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해보시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빠르게 자격증을 따고자 하는 분들께 추천 드립니다. 최대한 와 닿게 쓰려고 노력했는데, 추상적인 과정을 글로 전달하는 게 어려워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시험 보시는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